

저소득층의 탈수급 맥락에 대한 질적 연구

장 혜 진
(충북대학교)

조 윤 정*
(충북대학교)

윤 진
(충북대학교)

권 지 성
(침례신학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탈수급 요인들과 그 맥락을 탐색하는데 있다.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패널 중 8개의 사례를 추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저소득층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하여, '맥락-구조분석'을 적용하여 횡단적으로(차원), 현상과 경험의 두 측면(수준)을, 생태체계관점(관점)에 근거하여 탈수급 주요요인, 직접요인, 간접요인들로 분류하였고, 이를 도식화하였다. 분석 결과, 탈수급 주요 요인은 현상에서 '근로소득', 경험에서 '탈수급 의지'로 나타났다. 탈수급 여부는 탈수급 의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고, 탈수급 관련 요인들이 정적·부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탈수급 맥락에서 '행복'과 '자녀'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요인에 주요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저소득층, 탈수급 맥락, 탈수급 요인, 질적 연구

본 연구는 '제5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교신저자: 조윤정, 충북대학교(orientalkorea@hanmail.net)

■ 투고일: 2013.1.31 ■ 수정일: 2013.3.7 ■ 게재확정일: 2013.3.15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탈수급 요인들과 그 맥락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패널 중 탈수급을 했거나, 탈수급이 가능한 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사례들을 표집하고, 해당 사례들에 대한 질적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질적 패널 연구참여자와 직접 면접을 하면서 탈수급 관련 기존 연구에서 밝힌 요인 외에 숨겨져 있는 요인들이 있으며, 이 요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동안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탈수급의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실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수급자의 탈수급 유도이며, 이를 위해 자활사업 등 다양한 탈수급 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률이 10%에 그칠 정도로(권덕철, 2011) 지속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탈수급 유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탈수급 여부에 초점을 두고,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시적이고 측정가능한 주요 요인들을 위주로 살펴보는 인과론적 접근을 우선시하여, 결국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이 간과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과론적 접근에서는 탈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근로여부에 중점을 두는 반면,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근로의욕 저하나 수급 유지를 원하는 가치관 등 개인이 갖고 있는 요인들의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실천현장에서 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중요한 기준이거나 이미 밝혀진 요인 외에 주관적·개인적이며, 숨겨져 있는 요인들이 탈수급 맥락에서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가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2010년부터 시행된 희망키움 통장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에 참여하는 수급자 전체의 26.7%가 사업 종료시점에서 각종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종료 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계속 받고 싶다는 응답도 14.1%로 나타나고 있다(권덕철, 2011). 또한 수급자의 지위에서 받던 현금과 현물급여가 수급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사라진다는 불안감은 수급자로 하여금 탈수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유태균·이선정, 2011), 수급자 중 다수

가 수급진입 과정에서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가족해체나 재산소진 등의 과정에서 무기력증(helplessness)을 체득하게 된다(안서연 외, 2011)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2012)을 보면, 수급자 비율은 학령기 이후부터 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남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급자 중 비경제 활동인구가 82.2%에 달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60.5%,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64%로 나타나 가구 내에 측정되지 않는 내적 역동을 무시하고 단순히 근로 촉진만을 목표로 한 현재의 제도로는 탈수급 효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탈수급의 맥락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하다.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양적 연구(김교성·노혜진, 2009; 여유진 외, 2004; 이원진, 2010a; 이현주, 2008)들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양적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탈수급 관련 연구에서도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탈수급 또는 탈빈곤 관련 질적 연구(김정현, 2012; 이현주, 2008; 황정임, 2004)들과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서적 요인에 관한 연구(안서연 외, 2011; 이원진, 2010b), 탈빈곤 전후의 생활에 대한 연구(유태균·이선정, 2011)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11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양적·질적 연계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나, 탈수급 자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는 못했다(최현수 외, 2011). 개인의 주관적 인식 맥락을 살펴본 질적 연구(백학영·고미선, 2007)도 있으나 주제를 자화로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렇듯 탈수급 관련 양적 연구의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질적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탈수급 요인들의 맥락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전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탈수급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변수만으로는 충돌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럴 경우 다른 설명변수와의 조합을 통해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노대명·원일, 2011), 심리·정서적 요인을 고려하여 탈수급 경로를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안서연 외, 2011; 이현주 외, 2009).

이상과 같이 탈수급과 관련된 기존의 실천적·이론적 접근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양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더 깊이 있는 탐색,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구자만의 관점이 아닌 수급자와 탈수급자들의 관점에서

조망되고 이해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 또는 탈수급자들의 관점이 반영된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탈수급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 즉 탈수급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의 탈수급 맥락은 어떠한가?”

II. 문헌검토

1. 탈수급의 의미

탈수급은 말 그대로 복지 수급을 받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급여중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의 중지 사유가 있는데,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¹⁾,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²⁾,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여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경우를 지칭한다(보건복지부, 2012).

이론적으로 탈수급이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탈빈곤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탈수급은 반드시 탈빈곤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노대명·원일, 2011).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에 따라 탈빈곤을 전제로 한 탈수급과 그렇지 않은 탈수급을 구분해서 그 양상을 비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김미곤, 2008; 이원진, 2010a; 노대명·원일, 2011; Ayala & Rodriguez, 2007).

Ayala과 Rodriguez(2007)는 3가지 탈수급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성공적(successful) 탈수급’의 경우 자발적 탈수급으로 수급기준 이상의 소득인 경우나 합의된 목표를 충족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부정수급에 의한(exit due to fraud) 탈수급’은 수급 요건 변경으로 인하거나 행정적 요구사항의 불이행, 수급의 부적절한 사용, 사기, 중요한 변화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행정적(administrative)

-
- 1)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수급자의 취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할 때, 생업자금을 대여신청당시의 사업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장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등.

탈수급은 주로 연령이나 사망, 이주, 투옥 등에 의한 탈수급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탈수급 유형별 수급기간의 패턴을 비교한 결과, '성공적 탈수급'과 '부정수급에 의한 탈수급'은 그 양상이 비슷한 반면, '행정적 탈수급'은 매우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행정적 탈수급'과 달리 앞선 두 탈수급 가구에서는 가구특성 등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대명과 원일(2011)의 연구에서는 소득, 재산, 지출변화(가구규모 변화)로 인한 탈수급은 '성공적 탈수급', 부양가구의 부양능력 변화, 행정상의 탈수급 조치, 기타 사유로 인한 탈수급을 '행정적 탈수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이 두 유형은 별다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성공적 탈수급과 행정적 탈수급 모두 '바람직한 탈수급³⁾ 경로를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유사한 연구인 이원진(2010a)의 연구에서는 탈수급을 수급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탈출 후 여전히 빈곤한 '탈제도적 수급탈출'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기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는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빈곤적 수급탈출은 수급탈출 이후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상승한 반면, 탈제도적 수급탈출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의 증가 경험 여부가 이 두 가지 유형의 상이한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해서 본 연구를 구성해 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상태인지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수급 기준에서 벗어나 탈수급 상태인지를 구분하는 '탈수급 여부'라는 하나의 축과 '탈수급 의지'라는 또 하나의 축을 교차하여 높은 탈수급 의지를 가지면서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 탈수급은 했으나 본인의 탈수급 의지는 높지 않아 언제든지 다시 수급자로 가고 싶어 하는 경우, 현재 수급 상태이지만 탈수급의 의지가 높은 경우, 마지막으로 수급 상태이면서 탈수급 의지도 약한 경우로

3) 바람직한 탈수급이란 소득 및 자산증가에 따른 탈수급을 뜻하며, 탈빈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대명과 원일(2011)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탈수급의 경우 근로소득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행정적 탈수급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두 가지 탈수급 모두 소득요인보다 지출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바람직한 탈수급 경로로 보기 어렵다.

분류할 수 있다. 탈수급 연구에서 수급자들까지 연구 범위에 넣은 이유는 탈수급 되기 전 수급 상태부터 연결된 복잡한 맥락과 그 맥락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탈수급 여부 이상으로 그 기저를 이루는 의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과 ‘경험’⁴⁾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2. 탈수급 관련 선행연구

탈수급에 관련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동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탈수급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Ayala & Rodriguez, 2007; Bäckman & Bergmark, 2011; Bergmark & Backman, 2004; Dahl & Lorentzen, 2003; Mood, 2012). Ayala와 Rodriguez(2007)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탈수급 유형별 분석을 통해 무엇보다도 고용력(employability)과 인종이 가장 명백한 탈수급 요인이며, 성별 자체보다는 성별이 부양가족과 같은 다른 가족 요인들과 결합했을 때 탈수급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가족이 많을수록, 그리고 한부모가족일 경우 탈수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한부모나 미혼일 경우 탈수급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Bergmark와 Backman(2004)의 연구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이 외에도 Ayala와 Rodriguez(2007)는 가구주가 다양한 이유로 수급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사회적 고립은 수급기간을 길어지게 함으로써 탈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Dahl과 Lorentzen(2003)은 개인 특성으로 저연령이며 고학력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이 탈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Bergmark와 Backman(200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Dahl과 Lorentzen(2003)의 연구에서는 수급기간이 일정 기간 경과한 뒤에 탈수급이 높게 나타난 반면, Bäckman과 Bergmark(2011)와 Mood(2012)의 연구에서는 수급기간이 길수록 탈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anto(2002)는 수급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먼저 가구주의 성별은 그 자체만으로는 재진입에 유의미하지 않지만 나이와 배우자 유무 등과 상호

4) ‘현상’과 ‘경험’은 3장 연구방법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5)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미취학자녀 및 취학자녀의 유무, 종사상 지위, 배우자의 근로능력 등 다른 설명 변수와의 조합을 통한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

작용하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배우자 부재와 많은 가족 수(특히 14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농촌 거주, 직업이 단순노무이거나 자영업 일 경우 재진입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높은 교육 수준과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좀 더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하여 수급 재진입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수급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적은 편이며, 탈빈곤에 비해 제한적이다. 탈빈곤은 빈곤상태를 벗어나는 것으로 수급자 지원을 벗어나는 탈수급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반드시 탈수급이 탈빈곤으로 이어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탈수급 맥락 관련 국내연구의 동향을 보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수급동태 분석 연구(구인회, 2005; 노대명·원일, 2011; 백학영·조성은, 2012; 안서연 외, 2011; 유태균·윤성원, 2012; 이원진, 2010b)들을 포함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질적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양적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인 탈수급 관련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근로'가 탈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노대명·원일, 2011; 백학영·조성은, 2012; 안서연 외, 2011), 특히 상용직 임금 근로자일 경우 성공적인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노대명·원일, 2011). 또 다른 주요 탈수급 요인으로 '수급기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연구자들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복지패널을 이용한 안서연 외(2011)의 연구에서는 수급기간이 탈수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파악되지만 수급탈출이 용이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이질성 때문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같은 복지패널을 이용한 이원진(2010a)의 연구에서는 탈빈곤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이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보사연의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빈곤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노대명과 원일(2011)의 연구에서는 수급기간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상당수의 수급가구가 자녀 성장에 필요한 일정기간의 지도를 받고 교육비나 주거비 등의 지출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탈수급을 하게 된다는 메커니즘으로 분석하고 있다.

탈수급 성과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자활의지, 근로의욕, 자립태도 등 자활을

주요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917명의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이나 창업 등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수급자들의 특성과 자활의 요인을 분석한 김교성과 강철희(2003)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건강상태와 자활의지가 자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활참여자들의 탈수급을 위해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과 자활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근로능력과 근로뿐 아니라 자존감과 주관적 수급탈피 전망 등 심리 정서적 요인이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을 고려할 때(권승, 2005; 안서연 외, 2011), 소득증대를 통한 탈수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활활동 이전에 자활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자활 즉, 탈수급을 위한 자활을 위해 자활참여 전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자활을 위한 충분한 활동 기간도 필요하다(신명호, 2007; 안서연 외, 2011; 이태진 외, 2008)고 주장하고 있다. 탈수급한 자활사업 참여 경험자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악화, 사별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태균·윤성원, 2012).

이외에도 연령, 성별, 교육수준, 취학자녀의 유무 등 대부분 가구주들의 인구학적, 가족구조적 특성 혹은 인적 자본 측면들을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들로 보고 있으며, 그 효과는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태균과 윤성원(2012)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취·창업의 영향력을 분석하면서 자녀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이 탈수급에 주요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백학영과 조성은(2012)은 타가구원의 소득 증가에 필요한 교육이나 의료, 보육, 가사 지원 등이 탈수급 촉진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급자들의 심리 및 태도 등과 관련해서는 자존감과 주관적 수급탈피 전망(안서연 외, 2011), 우울(이원진, 2011)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상과 같은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는 대부분 수급과 자활 경험, 빈곤한 삶 등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며, 탈수급과 관련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탈수급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황정임(2004)의 연구에서는 '제도적 지원을 발판으로 자식을 생각하며 힘겹게 살아내기'가 핵심범주로 나타났으며, 여러 유형 중 '도약준비형'의 경우 제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와 종교적 신념,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지지와 격려 등이 ‘자립불안형’이나 ‘다시좌절형’과 비교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자활사업을 통해 익힌 일과 기술들이 직업으로의 전망과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긴요한 급여인 의료급여에 대한 절실함이 탈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결국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근로활동을 줄이거나 소득을 조정하는 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취학자녀가 탈수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이 오히려 탈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수급자와 전담공무원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연구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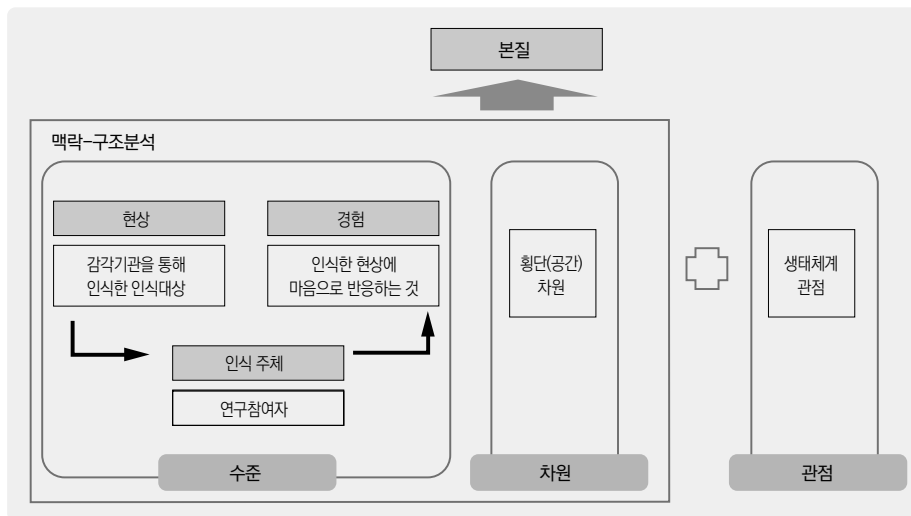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탈수급 맥락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권지성(2012)이 ‘맥락-구조 분석’이라고 분류·명명한 질적 분석방법으로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맥락-구조 분석’은 횡단(공간)차원 및 현상/경험에서 발견된 특정 주제의 구조에 포함된 요소들이 연속적 또는 그물망처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기술하기 위한 방법이다(권지성, 2012). 이 방법은 크게 ‘수준’과 ‘차원’이라는 두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수준’은 ‘현상’과 ‘경험’ 수준에 따라 분석하여 요인을 찾아내는데, ‘현상’은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한 것으로 말과 행동, 인공물, 또는 일화들이며 이것은 흔히 육하원칙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은 인식주체(연구참여자)인 자신이 인식한 현상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차원’은 시간과 공간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맥락-구조 분석에서는 횡단(공간)차원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현재 시점에서 현상을 분류하거나 경험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 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인식한 현상이나 경험을 범주화하는 것이다.

앞선 ‘수준’과 ‘차원’이라는 두 기준 만으로도 본 연구주제를 분석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관점’ 기준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점 중 생애

체계관점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는 유기체와 환경 간 체계적인 상호작용의 속성을 설명하는 이 관점이 인식주체와 요인 간 상호관련성과 맥락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주체를 둘러싼 체계가 직접·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체계관점에 따라 인식주체 관련 요인들을 영향력 정도에 따라 주요인(탈수급요인), 직접요인, 간접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요인 체계를 구분하고, 그 체계간의 관련성을 쉽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직접요인이란 탈수급과 탈수급 의지에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말하며, 간접요인은 탈수급과 탈수급 의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직접요인보다 영향력이 적은 현상과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낸 요인들을 생태체계관점에 따라 그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긴밀하게 얽혀져 있는 것(맥락)을 도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본질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림 1. 맥락-구조 분석방법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44가구 중 8가구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이 본 연구의 주제이므로 가구주가 노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사례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가구만 분석 대상이 되었다. 각 사례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총 8사례 중 4사례가 탈수급 상태이고, 나머지 4사례는 조건부수급 상태였다. 탈수급 의지는 현재 수급상태가 탈수급인 경우와 수급자로 재진입을 원하는지 여부로 구분하였으며, 조건부수급인 경우 현재 수급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여부로 구분한 결과, 총 8사례 중 5사례가 높은 편, 3사례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연령	성별	학력	가구특성	수급상태	탈수급 의지
사례 1	34	여	고등학교 졸업	부부-자녀가구	탈수급	높은 편
사례 2	48	여	대학원 졸업	모자가구	탈수급	낮은 편
사례 3	37	여	대학 재학	모자가구	조건부수급	낮은 편
사례 4	61	여	대학 졸업	모자가구	탈수급	높은 편
사례 5	54	남	대학 중퇴	부부-자녀가구	조건부수급	높은 편
사례 6	43	여	전문대 졸업	모자가구	탈수급	높은 편
사례 7	41	여	대학 졸업	모자가구	조건부수급	낮은 편
사례 8	49	여	전문대 재학	부부-자녀가구	조건부수급	높은 편

3.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면접이었다. 면접은 대상자가 원하는 장소에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에 대상자가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사례마다 면접 횟수는 2~3회, 면접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최대 203분 정도 소요되었다.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의 전사된 자료를 요청하여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과 글쓰기

이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사례의 패널 원자료를 읽어본 후 탈수급과 관련이 있는 문장들을 코딩하였다. 코딩된 문장을 모아 나열하고 의미단위들을 도출하였다. 분석된 의미단위를 상위 개념으로 분류한 후 상위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현상의 경우 주체가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한 것이므로 객관적 요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자료의 문장 혹은 의미단위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예, 직업, 근로소득, 자녀 등)를 선택하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경험의 경우 주체가 마음으로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인이므로 그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요인은 '만족', '희망' 등 다른 용어로도 쓸 수 있었으나 주체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행복'이라는 연구자들의 판단에 따라 그 용어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탈수급 요인 간 맥락을 한 눈에 담기 위해서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분석결과를 도식화하였다. 각 사례의 맥락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먼저 경험과 현상으로 구분하여 요인을 배치하였다. 이어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탈수급 요인, 직접요인, 간접요인으로 구분하여 동심원 구조로 각 층위에 배치하였다. 성격이 비슷한 요인의 경우 점선으로 된 원으로 묶어 상위요인으로 추가 구성하였다.

또한 사례들의 요인 간 방향성을 화살표로 표시하였으며, 사례의 언어로 직접 표현된 요인의 방향성은 실선으로, 비록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맥락을 통해 예측 가능한 간접 요인의 방향성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영향력 정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다르게 표현하여 선이 굵을수록 영향이 더 커짐을 나타내었다. 또한, 요인의 영향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나타내기 위해 (+), (-)로 부호화하였으며,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부호를 동시에 표기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친 후, 연구결과는 먼저 각 사례의 요인과 맥락을 기술하고 이어 도식화한 그림을 배치하는 순서로 작성하였다. 사례 순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탈수급 의지 정도와 수급상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탈수급 의지 정도는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진들의 충분한 분석과 논의에 의해 결정하였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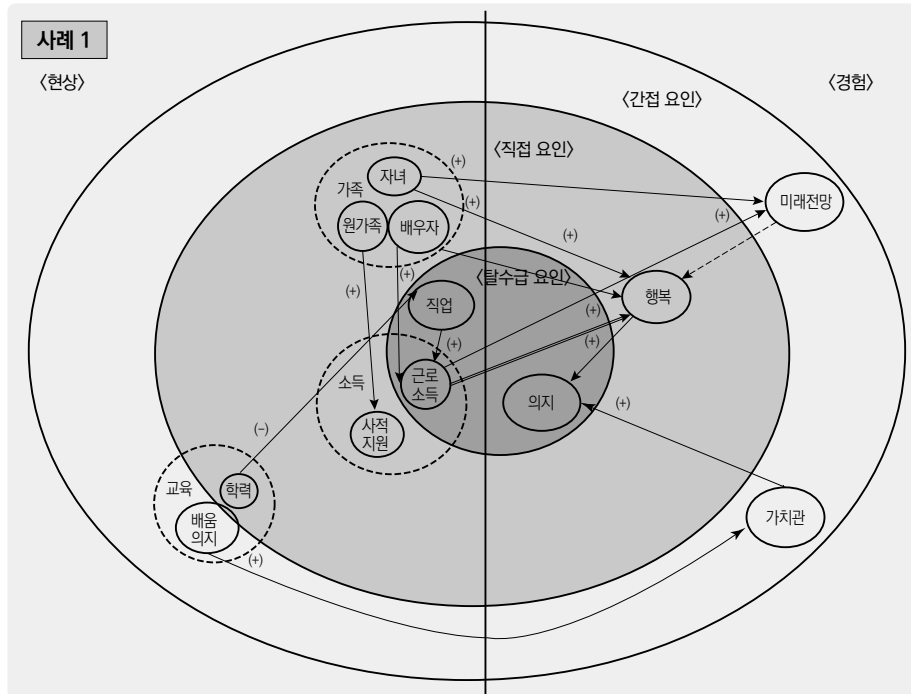
1. 사례별 맥락

가. 높은 탈수급 의지

1) 사례 1: 탈수급자

사례 1은 현재 탈수급 상태다. 탈수급 당시 탈수급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수급자로 재진입할 생각은 없었다. 탈수급 주요 요인은 현상의 경우 '직업', '근로 소득'이며, 경험의 경우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으로 인한 근로 소득이 생기면서 삶의 만족이 높아져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수급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그림 2. 사례 1



이 사례는 이혼 후 수급자가 되었다가 재결합 후 배우자의 소득(소득, 직업)이 발생하여 탈수급하게 되었다. 전보다 경제적 상태가 나아져 경제적인 이유로 배우자와 싸울 일도 없어지고(배우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기 때문에(자녀) 사는 것이 행복하다(행복). 이전에 수급자였을 때는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받아서 좋긴 했지만 현재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굳이 다시 수급 지원을 받을 생각은 없어(의지) 행복이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물론 남편과 자신의 근로소득으로는 생계를 꾸려가기에 충분하지 않다. 학력이 낮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학력은 경제적으로 더 윤택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배움 의지), 실제로 노력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남편이 본인의 직장 생활 외에도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신도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근로소득), '자녀'들이 성장하면 가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미래전망). 가까이 살고 있는 친정 엄마(원가족)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가끔 먹을 것도 챙겨주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사적 지원).

2) 사례 4: 탈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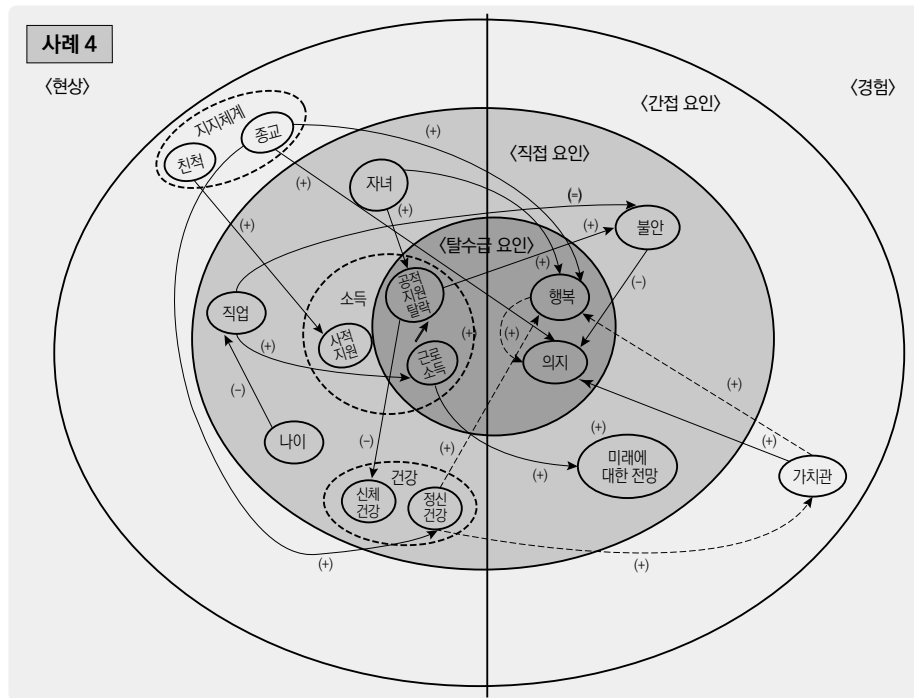
사례 4는 현재 강제적 탈수급 상태며, 탈수급 의지는 높은 편이었다. 이 사례의 탈수급 주요 요인은 현상의 경우 '근로소득'과 '공적지원 탈락'이고, 경험의 경우 '행복'과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사례 4는 남편 사별 후 요양보호사(직업)를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직한 소득신고(근로소득)와 사위(자식)의 소득으로 인해 작년에 강제적 탈수급이 되었다. 탈수급은 무엇보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공적인 보호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불안함(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탈수급에 대한 긍정적 마음가짐(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수급을 더 받으라는 주변의 충고에 따르지 않고 지금의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독실한 신앙생활(종교)로 인한 삶의 만족(행복)과 함께 매우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정신건강'과 이로 인해 형성된 수급과 탈수급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등이 '행복'과 더 나아가 탈수급 '의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와의 좋은 관계 역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 시아주버님(친척)의 경제적 지원(사적 지원)도 부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으며, 현재까지 남은 부채 역시 계획성 있게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수급으로 인한 의료보험 비용 부담이 치과 진료를 미루는 등 잠재적으로 ‘신체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현재의 많은 ‘나이’가 더 좋은 직장으로서의 이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불안정한 특성 역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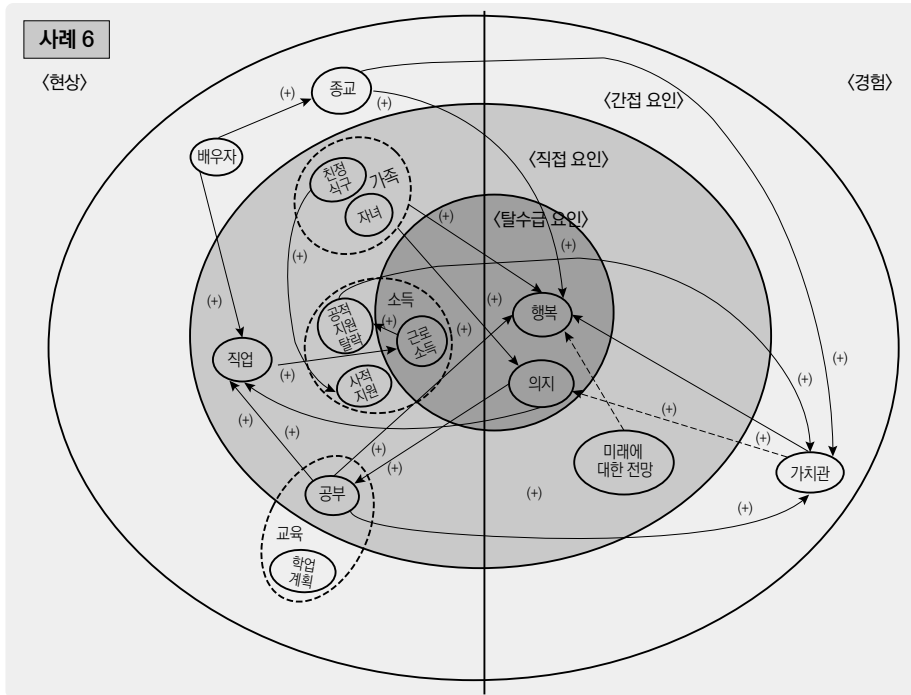
3) 사례 6: 탈수급자

사례 6은 현재 탈수급 상태며, 탈수급 의지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 사례의 경우 현상인 ‘근로소득’과 경험인 ‘행복’, ‘의지’가 탈수급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사례 6은 남편과의 이혼 후 영업사원을 하다 수급자가 되어 사회복지 관련 자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탈수급을 계획하며(의지) 야간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공부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였다(공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직업), 소득의 증가(근로소득)와 함께 본인의 의지대로 탈수급(공적지원 탈락)이 되었다. 결국 탈수급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공부’와 ‘직업’으로 연결되면서 실질적인 ‘근로소득’의 상승과 앞으로의 ‘학업계획’을 통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이 현재 생활의 만족감(행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사례 6



사례 6은 비록 전체적인 경제적 수입은 줄었으나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탈수급으로 인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혼 후 삶의 지지체계가 된 ‘종교’ 생활과 앞으로의 학업계획은 ‘행복’과 탈수급 ‘의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혼 이후 현재까지 경제적 지원과 양육에 도움을 준 친정어머니와 여동생(친정식구)은 현재 같이 동거하는 가족으로, ‘행복’과 탈수급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수급을 받으면서 공적지원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자신을 잃어매었던 자격지심, 여기에 ‘공부’와 ‘종교’를 통한 ‘가치관’ 형성이 현재의 당당한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사례 5: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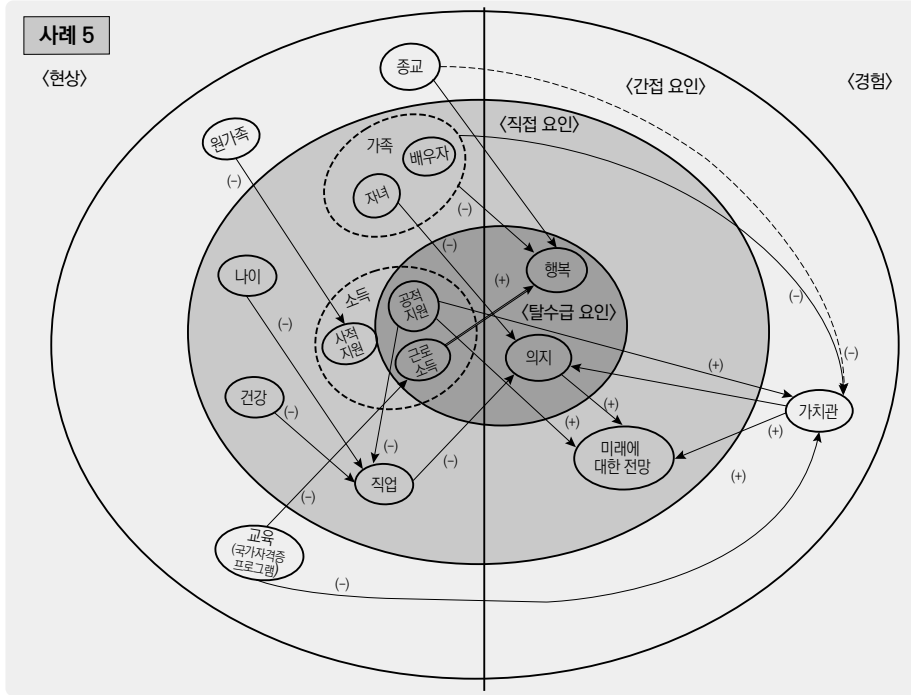
사례 5는 현재 희망키움통장을 하고 있는 조건부수급자며, 탈수급 의지는 높은 편이었다. 이 사례의 경우 탈수급 주요 요인은 현상의 경우 ‘공적지원’과 ‘근로소득’이며, 인식의 경우 ‘행복’과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경우 탈수급 ‘의지’가 매우 강한 편이며, 현재 희망키움통장(공적지원)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 밝다고 보고 있었고, 수급정책과 탈수급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본인의 탈수급 ‘의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과 관련된 국가 자격증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는 심한 불신감과 부정적 인식이 강했으며 이는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활을 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 현재 생활에는 만족한 편이나(행복) 실질적인 탈수급은 ‘자녀’들의 학업이 끝난 이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조건부수급 유지를 위한 자활(공적지원)이 취업(직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탈수급 ‘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으로 ‘종교’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국제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종교’에 대한 후회와 강한 불신이 현재의 만족도(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종교’ 생활의 중단은 부부 모두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간 관계가 원만치 않으며 특히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매우 소원한 편이고, 이 역시 현재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 모두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사적지원)은 전무하며 특히 남편은 비빌 곳 없이 늘 혼자 힘으로 살았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런 점이 탈수급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인은 현재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많은 ‘나이’와 ‘건강’ 문제가 더 나은 구직 활동(직업)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5. 사례 5



5) 사례 8: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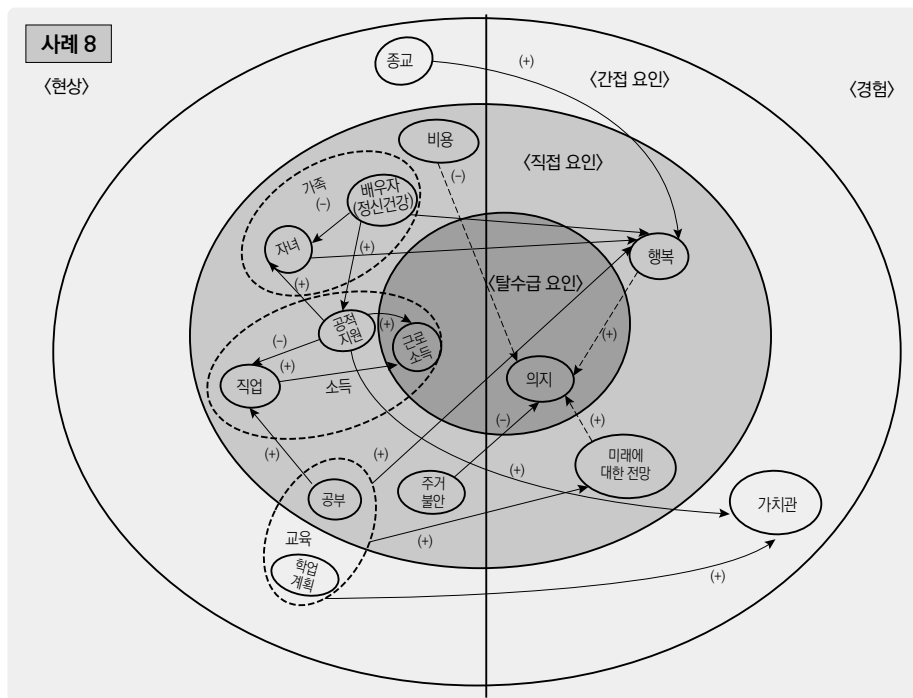
사례 8은 현재 조건부수급 상태며, 탈수급 의지는 높은 편이다. 탈수급 의지 관련 주요 요인은 현상에서 '근로소득', 경험에서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 스스로 적성에 맞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었다(교육). 교육과 공부를 통한 자격증 취득이 취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미래전망).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탈수급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의지).

과거 남편의 정신적 장애(배우자)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나, 장애 등록 후 의료비부담과 주거문제가 줄어들고, 자활을 통한 수급 등이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어 들게 하여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망(미래전망) 의지를 갖게 해 미래의 직업을 위한 도전을 하게끔 하였다(가치관). 그러나 자활센터에서 알선해주는 직업훈련과 직업은 연구참여자와 맞지 않거나 자녀를 양육하며 병행하기 어려웠기에, 스스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다. 자활센터의 정보력과 개인적

노력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학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자활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더 커졌다. 또한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겪고 느끼는 낙인화와 수치심 등은 사례자의 탈수급 의지를 키지게 하였다. '자녀'와 많은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행복), 타인이 자녀양육에 대한 칭찬을 할 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커졌다. 또한 남편의 정신적 병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될까 두려운 생각에 더 탈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반면 탈수급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탈수급 후의 '주거불안'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있었다. 주택지원과 자녀의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장 탈수급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6. 사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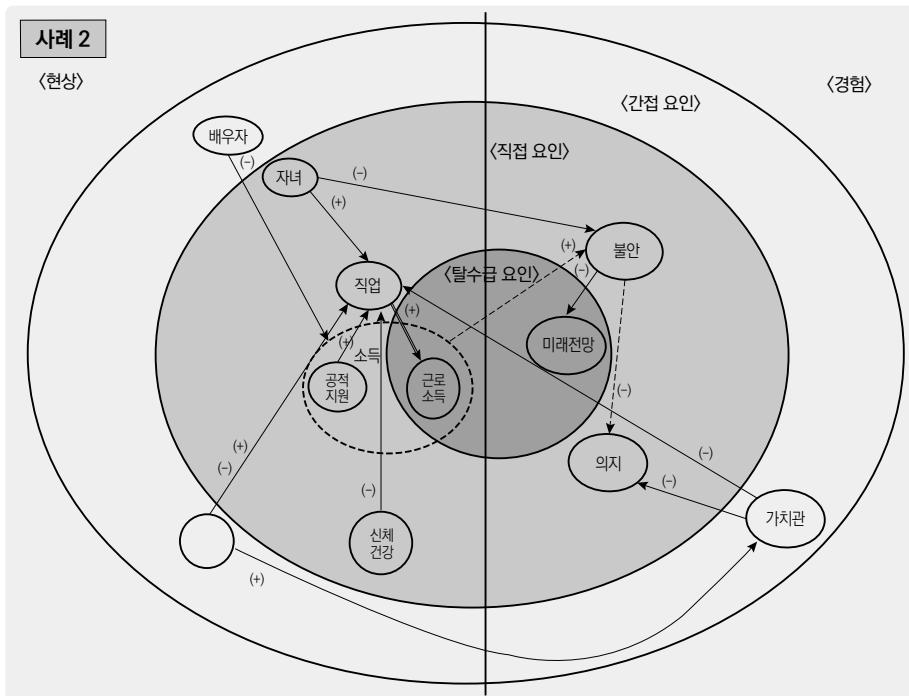


나. 낮은 탈수급 의지

1) 사례 2: 탈수급자

사례 2는 현재 탈수급 상태며, 수급제도 몰이해로 탈수급이 되었기 때문에 탈수급 당시 탈수급 의지도 전혀 없었다. 탈수급 관련 주요 요인은 현상에서는 '근로소득', 경험에서는 '미래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직업을 갖게 되면서 근로소득이 생겨 탈수급이 되긴 했으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시 수급지원을 간절히 원하여 탈수급 의지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사례 2



이 사례는 결혼 전까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았으나,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로 모든 것을 잃었다. 결국 이혼을 하고 수급자가 되었으나, 전 남편(배우자)이 생활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수급비마저 착취하여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소득).

생계를 위해 직장을 구했으며(직업), 이전 근로 경력과 높은 학력(학력)으로 비교적 수입(근로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수급자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몇 개월 생겼는데, 소득이 조사에 잡히면서 자연적 탈수급이 되었다. 하지만 탈수급 기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바로 탈수급이 되어 매우 당황하고 힘들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 질 것 같아(불안) 현재 절실하게 재수급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지만, 수급 지원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시간적·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직업, 가치관). 또한 과거에 사회적 지위(학력)도 높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나(가치관), 지금 상황에서는 똑똑한 자신의 자녀(자녀)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켜줄 수 없다는 생각(불안, 미래전망)에 수급 지원이라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사례 3: 수급자

사례 3은 현재 조건부수급 상태며, 탈수급 의지는 낮은 편이었다. 탈수급 주요 요인은 현상에서는 공적지원 ‘자활’과 ‘현물지원’이며, 경험에서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자활이나 현물지원 같은 공적지원은 탈수급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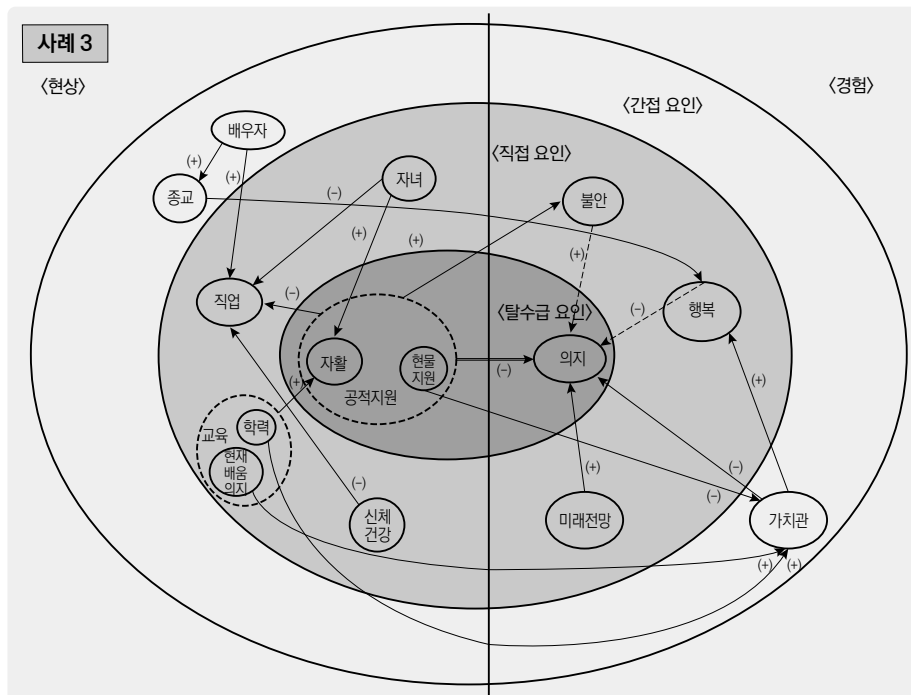
이 사례는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생겨 복수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학력), 전공 덕에 자활 업무도 주방 일에서 장애인활동 보조로 업무도 변경되었다(자활). 국가 지원으로 미용 기술도 배우고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하는 등 배움의 의지가 강한 편이었다(배움 의지).

이혼 후 처음 수급자가 되었을 때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상처도 받는 등 심리적으로 힘들었기에 탈수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수급 혜택(현물지원)을 받아보니 탈수급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자녀 돌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긴 일반 직장(직업)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탈수급이 되면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공적지원) 그 손실을 극복할 자신도 없었다(의지). 결국 이 사례의 경우 배움의 의지도 있고, 탈수급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자녀 양육과 수급혜택 손실이 탈수급 의지를 꺾어버렸다.

전 남편(배우자)이 외도를 하여 이혼을 했으나 상처를 극복하고자 일(직업)을 하기 시작하고, 종교(종교)도 갖게 되었다. 믿음(종교)에 의해 삶에 만족하게 되고 행복 정도

도 높아졌다(행복).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려는 마음을 갖다보니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게 되어 탈수급 의지도 낮아지게 되었다(의지).

그림 8.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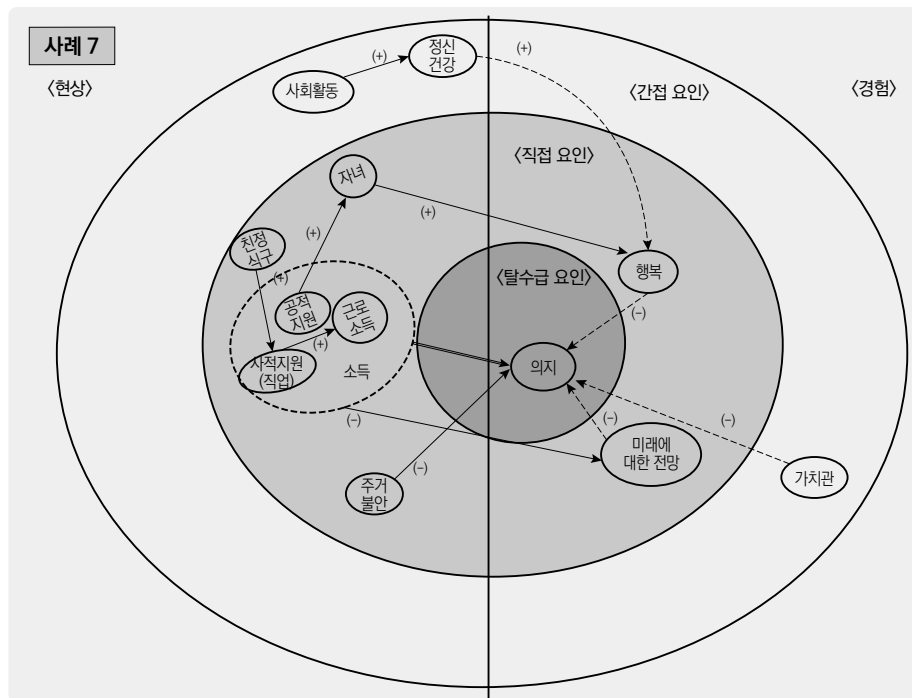
3) 사례 7: 수급자

사례 7은 현재 조건부수급 상태며, 탈수급 의지는 낮은 편이다. 탈수급 관련 주요 요인은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의 경우, 탈수급 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적지원'이었다. 남편과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가정으로 받는 현물·현금지원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가족의 지원은 사례 7의 탈수급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동생의 도움으로 동생의 사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적·정서적 여유로움이 크기에, 그저 동생이 월급을 조금만 더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직업을 바꾸고 싶은 욕구는

없었다. 현재의 직장은 근로시간이 여유롭고, 근무 스트레스도 적기에 취미활동과 자조 모임 등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과거 학습지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나, 밤늦게 끝나는 근로시간과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그만두었다. 그 후 동생의 일을 돕기 전에는 공적지원을 받아 직장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오히려 마음이 편했으며, 이때 취미생활도 할 수 있었다 하였다(행복). 현재 15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며, 자녀 또한 공적지원을 싫어하지 않고, 지원으로 여러 가지 현물 및 현금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든 것 외에는 자녀와의 큰 갈등도 없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물외의 공적지원으로 컴퓨터와 양재교육(고용지원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부정적 인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사례 7



만족도가 높은 근로를 하면서 공공부조를 받기에, 사례 7은 자조모임인 돌싱동호회를 통한 지지와 '사회활동'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러한 자조모임과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근로소득 등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만족(행복)은 탈수급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2. 통합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인 탈수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총 8사례의 탈수급자와 수급자의 면접내용을 현상과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파악되었다. 먼저 경험인 탈수급 의지는 탈수급 여부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즉, 탈수급 이전부터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탈수급 이후 현재의 생활에 만족함을 드러내는 사례가 있는 반면, 비자발적 탈수급으로 현재의 생활을 힘들어 하며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 싶어 하는 탈수급 사례가 있었다. 수급자의 경우 역시 비록 수급상태지만 강한 탈수급 의지를 보이는 사례와 반대로 현재의 수급생활에 만족해하며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특징 별로 탈수급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탈수급 상태이면서 탈수급 의지가 높은 경우(사례 1, 4, 6)들은 모두 소득 증가로 인한 탈수급 사례들이며, 아직은 경제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다른 사례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처음에는 배우자(남편)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했거나(사례 1, 4) 사는 동안 갈등이 많았는데(사례 6), 현재는 사이가 좋아져 재혼을 했거나(사례 1) 상담이나 교육, 종교 등을 통해 현재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사례 4, 6). 이러한 경험은 긍정적 가치관 형성과 현재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외에 원만한 가족 관계와 특히 원가족으로부터의 물질적·정신적 지지, 학력 자체보다는 현재 배움의 의지 등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과 경험들이 직·간접적으로 행복과 탈수급 의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수급 상태이면서 탈수급 의지가 높은 경우(사례 5, 8), 위의 사례들과 비교해

원가족의 사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 부분이 근로나 안정된 경제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이것이 탈수급을 유예하는 주된 요인으로 예측되며, 이는 탈수급이 소득요인보다 지출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노대명과 원일(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탈수급 상태이면서 탈수급 의지가 낮은 경우(사례 2), 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되지 않았던 탈수급 사례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매우 높았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 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혼 후 남편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별다른 지지 체계가 없다는 점과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자녀의 학업 걱정 등이 궁극적으로 탈수급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 상태이면서 탈수급 의지가 낮은 경우(사례 3, 7), 공통적으로 수급혜택을 받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행복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밝은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는 처음 사례들(탈수급 의지가 높고 탈수급 상태인 경우)과는 다른 맥락을 보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지체계가 부족한 상태와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혜택이 오히려 처음 가졌던 탈수급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식주체인 연구참여자들이 갖게 되는 이러한 현상과 경험들은 직·간접적으로 탈수급과 탈수급 의지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가 약간은 다른 맥락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공통되는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근로는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탈수급 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탈수급자들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나 본인의 괜찮은 직장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으로 인해 탈수급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본인 소득으로 인해 탈수급이 된 경우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이는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탈수급 의지를 더욱 상승시켰다. 반면, 자활이나 불안정한 직장에 의한 소득일 경우, 더 좋은 직장을 갖고 더 많은 월급을 받겠다는 의지보다는 적은 돈을 벌면서 수급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탈수급과 탈수급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들에서 먼저 경험의 경우, 행복은 탈수급 의지와 탈수급 유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었다. 긍정적인 경우는 주로 탈수급자이거나 수급자이더라도 탈수급 의지가 높은 경우로서 다양한 요인들, 즉 자녀나 종교, 소득, 교육 등이 중요한 행복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수급자이면서 의지가 낮은 사례의 경우, 행복이 오히려 탈수급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가치관 역시 직접적인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특히 탈수급 의지가 높은 경우 수급제도의 문제점이나 정신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주장한 편이었으며, 수급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 전망은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희망통장, 부채 상환, 미래의 자녀 취업 등이 탈수급과 탈수급 의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현상의 경우, 자녀는 탈수급과 탈수급 의지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보였는데, 긍정적으로는 자녀로부터 떳떳하기 위해, 또는 자녀들의 낙인감과 수치심 때문에 탈수급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부정적으로는 자녀 양육이나 교육비가 부담되어 탈수급을 두려워 하게도 만들었다. 교육 역시 탈수급과 특히 탈수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는데, 여기서 교육은 대부분의 양적 연구에서 말하는 학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과거의 학력 자체 보다는 현재 배움의 의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오히려 고학력이 현재의 구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탈수급 의지가 높은 대부분의 사례들은 현재의 배움이 탈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복감과 가치관 형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직업은 탈수급과 탈수급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안정적인 직업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불안정한 경우 불안을 높이면서 탈수급 의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지원 역시 직·간접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공적지원을 받음으로써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 안락한 도움이 직업과 근로소득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공적지원을 받으며 느낀 수급자로서 자격지심이 탈수급 의지를 강화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건강 역시 탈수급과 의지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병이 있거나 건강치 못한 경우 탈수급 의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 외에 종교와 배우자, 원가족, 사적지원 등이 간접적으로 탈수급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종교와 원가족이 지지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맥락

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례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사례이므로 배우자는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10. 공통되는 요인에 따른 사례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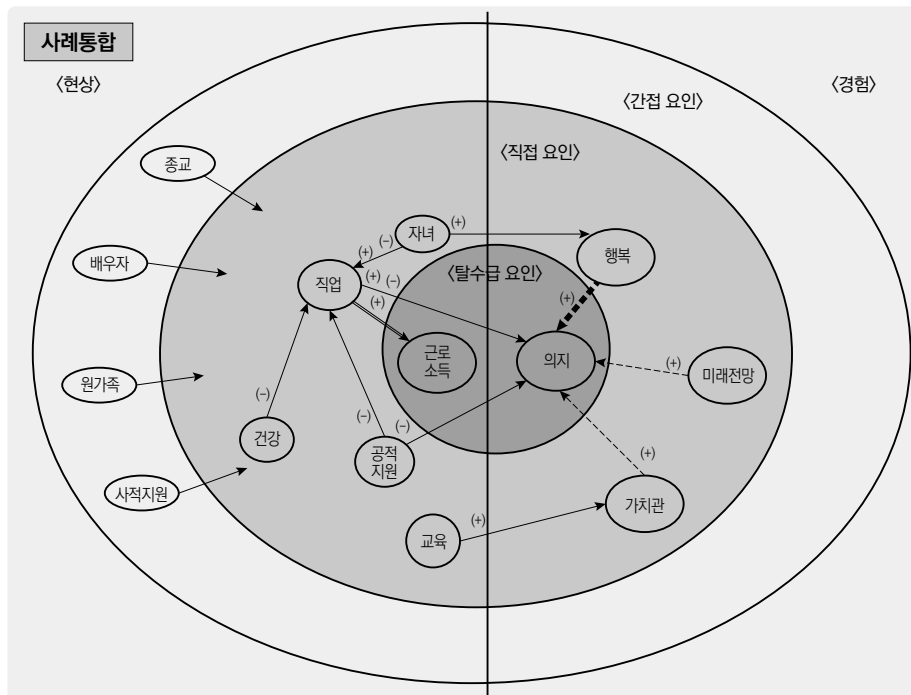


표 2. 통합 분석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현재 상태	탈수급	탈수급	조진부수급	탈수급	조진부수급	탈수급	조진부수급	조진부수급	
탈수급 의지	높은 편	낮은 편	낮은 편	높은 편	높은 편	높은 편	낮은 편	높은 편	
탈수급 주요 요인	<원상> ·직업 ·근로 소득 <경험> ·의지	<원상> ·근로 소득 <경험> ·미래 전망	<원상> ·근로 소득 <경험> ·의지	<원상> ·공적 지원 ·탈락 ·근로소득 <경험> ·행복 ·의지	<원상> ·공적 지원 ·탈락 ·근로 소득 <경험> ·행복 ·의지	<원상> ·공적 지원 ·탈락 ·근로 소득 <경험> ·행복 ·의지	<원상> ·근로 소득 <경험> ·의지	<원상> ·근로 소득 <경험> ·의지	
직접 요인	<원상> ·사적 지원 ·자녀 ·배우자 ·원가족 ·학력	<원상> ·공적 지원 ·자녀 ·신체 건강	<원상> ·자활 ·현물 지원	<원상> ·사적 지원 ·나이 ·자녀 ·신체건강 ·정신건강	<원상> ·사적 지원 ·직업 ·공부 ·친정 식구 ·가족	<원상> ·사적 지원 ·직업 ·공부 ·친정 식구 ·가족	<원상> ·공적 지원 ·직업 ·공부 ·자녀 ·친정식구 ·배우자 ·후거	<원상> ·공적 지원 ·직업 ·공부 ·자녀 ·배우자 ·후거	<원상> ·공적 지원 ·직업 ·공부 ·자녀 ·배우자 ·후거
간접 요인	<원상> ·배움 의지	<원상> ·배우자 ·학력	<원상> ·배우자 ·종교	<원상> ·종교 ·친척	<원상> ·종교 ·원가족 ·교육	<원상> ·종교 ·배우자 ·학업 계획	<원상> ·종교 ·학업 계획	<원상> ·종교 ·학업 계획	<원상> ·종교 ·학업 계획

V. 결론

본 연구는 탈수급 여부와 탈수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탈수급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탈수급 촉진을 위한 요인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탈수급 관련 결정요인과 저해요인의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통한 이해와 제도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현상과 경험으로 나누어 직접요인과 간접요인 등을 설명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탈수급 여부와 탈수급 의지의 기준에 의해 구분된 집단별 맥락을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일단 탈수급에 이르는데 있어 근로나 안정된 경제생활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근로 능력이나 학력보다는 원가족과 같은 사적 지지체계의 심리적·물질적 지원이 중요한 자원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대부분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나타냈으나, 상담이나 교육, 종교 등을 통해 심리적 역량이 강화되어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일부 사례들은 모두 긍정적인 가치관과 밝은 미래 전망 등을 가지면서 탈수급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탈수급 유도에 있어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심리적·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 낸 탈수급 관련 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주요 요인은 현재 수급지위 혹은 탈수급 경험 여부 자체보다는 탈수급 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수급 지위나 경험이 아닌 탈수급 의지가 중심 기준이 되어 다른 요인들 간의 맥락 도식이 형성되었다. 탈수급 의지에 따라 맥락을 살펴보면 탈수급 의지가 있는 경우 탈수급 의지가 없는 사례에 비해 다른 요인에 긍정적인 맥락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탈수급 여부는 탈수급 의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고,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경우도 탈수급 의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성공적/행정적 탈수급(노대명·원일, 2011)과 탈빈곤적/탈제도적 수급탈출(이원진, 2010a)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탈수급 여부와 같은 단편적인 연구나 해석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체적인 시각은 복잡하고 다양한 탈수급 맥락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이해하며, 성공적이며 탈빈곤적인 탈수급 정책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탈수급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도 단선적인 일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양적 연구에서는 직업이나 근로소득이 탈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혔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례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역시 직업을 갖는데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학력 외에 현재 배움의 의지나 직업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탈수급 주요 요인이라고 밝힌 학력은 본 연구의 탈수급 맥락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현재 배움의 의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있어서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고학력인 경우 학력 자체가 탈수급이나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저학력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력과 탈수급 맥락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탈수급 맥락에 있어 무엇보다 행복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행복이 탈수급과 탈수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분과 가족 간 관계, 종교나 원가족과 같은 지지체계 등이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행복이 반드시 탈수급 의지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수급자인 경우 수급 관련 혜택들로 인한 현재의 만족감이 행복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탈수급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행복은 극히 주관적 요인으로 양적 연구에서는 다루기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탈수급 관련 연구에서는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행복이 탈수급 맥락에 있어 중요한 직·간접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추후 연구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탈수급에 대한 실천적 함의에 있어서 행복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은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질적인 면의 제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대부분 사례에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탈수급 의지에 주요한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단 한 사례에서만 자녀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를 상쇄한 요소는 대상자의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수급자라는 특성상, 단시간에 안정적인이고 괜찮은 직장을 갖기는 쉽지 않으며, 이런 점으로 볼 때 위 사례는 현실적으로 드문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탈수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발적이고

성공적인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탈수급 맥락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개인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양적 연구를 통한 몇 가지 공통적 요인을 실천 현장이나 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자발적이며 성공적인 탈수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을 탈수급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합적 급여체계는 오히려 탈수급 저해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급 기준을 약간 선화하는, 그렇지만 여전히 열악한 급여를 통해 주어지는 탈수급자라는 뚜렷한 자격보다는 오히려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탈수급 됨으로써 국가의 보호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감이 수급자들로 하여금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표방하며 신설된 ‘희망복지지원단’은 이렇듯 불합리한 현재의 수급체계와 복지서비스체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 사례관리 및 방문형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지만 기존의 일률적이고 편파적이던 체계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은 분명해 보이며, 이제는 이 제도가 본래 목적과 시행의도가 변질되지 않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자, 실무자, 연구자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탈수급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현상 위주로 탈수급을 다루고 있는 반면, ‘경험’적인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단순히 탈수급 여부라는 현상만이 아닌 탈수급 의지가 탈수급 맥락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탈수급 의지에 행복이라는 경험이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우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이 행복이라는 요인은 주어진 조건이 비슷함에도 그 인식 정도나 영향 요인이 상이했으며, 가족관계·종교·원가족·직업 등 다양한 현상적·경험적 요인들이 얽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 많은 양적 연구들에서는

학력이 탈수급에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 그 자체 보다는 현재 배움에 대한 의지가 오히려 탈수급과 탈수급 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 어떤 대상자의 경우 높은 학력이 오히려 탈수급 맥락에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수급자로서 살아온 인생에서의 큰 교훈으로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학력의 중요성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인적자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현상 수준의 요인 못지않게 경험 수준의 요인에 대한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수급 탈출 결정 요인 못지않게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탈수급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고연령이거나 의료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료비 부담이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결국 탈수급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이는 탈수급, 탈빈곤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도 연구자나 또는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진솔로 확인된 바 있고, 이런 이유로 현재의 통합급여 체계의 문제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교육이나 의료급여에 대한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등의 이행 급여제도가 대두되고 있는 현 문제들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상담이나 치료 등을 통해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해주거나 자존감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삶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행복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자발적이며 성공적인 탈수급으로 향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과정 속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질적 연구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8사례로 저소득층의 탈수급 맥락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현상' 요인과 '경험' 요인이 양방향성이 아닌 일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설계 시 일방적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현상'에서 '경험' 요인으로 방향성이 치우쳐 나타나는 것은 본 연구가 2012 질적 패널 자료 중 탈수급 의지와 탈수급 여부에 초점을 두어 분석 가구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로 보인다.

또한 ‘현상’의 경우 인식주체의 목소리에 의해 나타난 객관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고, ‘경험’의 경우 연구자에 의해 발견된 주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현상’에서 ‘경험’으로 가는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반대로 ‘경험’에서 ‘현상’으로 가는 방향성은 연구자의 해석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방향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들의 ‘현상’과 ‘경험’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접근한다면 저소득층의 탈수급 맥락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맥락을 토대로 다른 개념으로 확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장혜진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 졸업·박사수료를 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농촌아동과 조손가족이며, 현재 학업성취도와 사회자본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3051303@hanmail.net)

조윤정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 졸업·박사수료를 했으며,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과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아동권리, 아동학대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orientalkorea@hanmail.net)

윤진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 졸업·박사수료를 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자본과 계층 불평등이며, 현재 해외자원봉사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pypdiamond@naver.com)

권지성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가족복지, 사회복지행정, 빈곤 등이다.

(E-mail: antier@kbtus.ac.kr)

참고문헌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pp.351-374.
- 권덕철(2011).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에 바란다: 우리빈곤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빈곤 정책 모델 제시를 바라며. 보건복지포럼, 177, pp.6-9.
- 권승(2005).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권 탈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2, pp.179-202.
- 권지성(2012). 사회복지 질적 연구접근의 재구성: 그리고, 은밀한 맥락을 찾아서. 사회복지연구, 19, pp.159-181.
- 김교성, 강철희(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pp.5-32.
- 김교성, 노혜진(2009). 빈곤 탈피와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존표 분석과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pp.185-212.
- 김미곤(2008).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방안. 보건복지포럼, 141, pp.73-81.
- 김정현(2012). 가난한 이혼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기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 노대명, 원일(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pp.333-360.
- 문화체육관광부(2012.05.07).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One Stop 복지서비스 체계 운영.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http://www2.korea.kr/newsWeb>에서 2012.01.29 인출.
- 백학영, 고미선(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0, pp.83-114.
- 백학영, 조성은(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사회복지연구, 43(1), pp.143-178.
- 보건복지부(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2).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신명호(2007). 근로연계복지제도로써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특징. 도시와 빈곤, 4(4), pp.69-92.

- 안서연, 구인회, 이원진(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근로능력자 집 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38(1), pp.199-226.
- 여유진, 김미곤, 김계연, 임완섭, 고연분(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태균, 윤성원(2012).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후 삶에 관한 탐색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39(1), pp.85-108.
- 유태균, 이선정(2011).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탈수급 전·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1), pp.185-215.
- 이원진(2010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3), pp.5-29.
- 이원진(2010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2(4), pp.249-274.
- 이태진, 김태완, 최현수, 김문길, 우선희, 박경희 외(2008).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안선연, 박경희(2009).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현수, 정혜숙, 권지성, 이은미, 정선옥, 조준용 외(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정임(2004). 빈곤여성의 자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Ayala, L., M, Rodriguez. (2007). What determines exit from social assistance in Spain?.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16, pp.168-182.
- Bäckman, O., Bergmark, A. (2011). Escaping welfare? Social assistance dynamics in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5), pp.486-500.
- Bergmark, A., O. Backman. (2004). Stuck with welfare? long-term social assistance reciprocity in Swede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0(5), pp.425-443.
- Canto, O. (2002).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low income stability in

보건사회연구 33(2), 2013, 091-127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Spain. *Applied Economics*, 34, pp.1903-1916.

Dahl, E., T. Lorentzen. (2003). Dynamics of social assistance: the Norwegian experie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12, pp.289-301.

Mood, C. (2012). Social assistance dynamics in Sweden; duration dependence and heterogeneity. *Social Science Research*, pp.1-20.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ntext of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Jang, Hye J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Yoon, J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o, Yun Ju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won, Ji Su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and their context of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To accomplish this purpose, researchers used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8 low-income individuals in qualitative panel related on Korea Welfare Panel, and analysed the data applying 'context-structure analysis' method. This analysis method is comprised of cross-sectional dimension, phenomenon-experience level, and ecological-systematic perspective. Researchers classified the diverse phenomenon and experiences with the core elements, direct elements, and indirect elements, and displayed them in diagram form.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re elements of welfare exit are 'earned income'(phenomenon level), and 'willingness to exit from welfare'(experience level). Success or failure of welfare exit did not coincide exactly with their will, and diverse elements related with welfare exit have influenced it positively or negatively. Also, 'happiness' and 'children' elements have direct or indirect relations with other phenomenon or experience elements in context of welfare exit.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proposed guidelines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to support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Keywords: Low-income Individuals, Context of Welfare Exit, Elements of Welfare Exit, Qualitative Approach